



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

올해 5년째 소리샘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숙 씨(27)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수 '보아'와 같은 존재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책을 읽은(?) 애청자들은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음성정보서비스센터(060-700-1236)로 찾아와 녹음실 책상 위에 목캔디나 음료수, 팬데터 등을 놓고 가기도 한다. 전화를 걸어와 밥을 같이 먹자거나 목소리로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는 등 열성팬들의 공세는 더욱 적극적이다.

신진숙 씨뿐만 아니라 서수연 씨(28세 4년) 김현선 씨(31세 3년) 이영희 씨(32세 6년) 김필진 씨(32세 8년) 등 소리샘 봉사단 회원들 모두 장애인들에게는 '연예인'과 같은 존재다. 장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곧 잘 화제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반응은 은근히 소리샘봉사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에서 활동했었어요. 우연히 시각장애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한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책을 읽어주는 '소리샘봉사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죠. 그렇다고 저희가 베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성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능도 살리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소리샘봉사단이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유는 신씨의 경우처럼 성우로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통 책을 낭독하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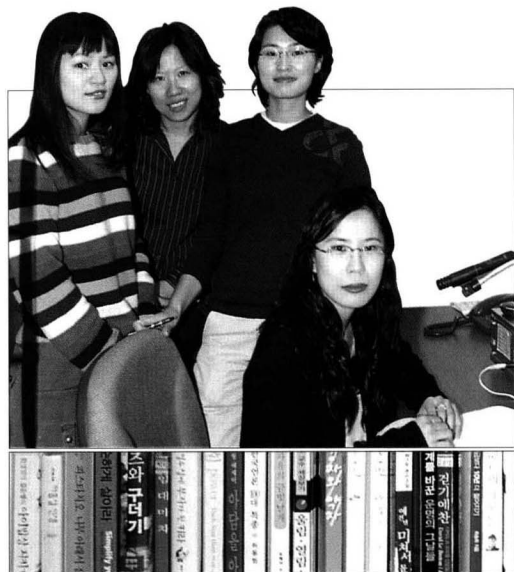
달리 독서방은 책 전체 분위기는 물론 대화체문장의 감정까지 살려서 읽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인 무협지의 싸움장면을 표현하려면 고난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보기엔 쉬워도 막상 해보면 띄어 읽기도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특히 봉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원고를 읽지 않고 녹화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죠."

서수연 씨는 순발력은 물론이고, 읽는 부분의 다음 문장까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제2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녹음에 들어가면 5시간 이상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필요한 것은 기본이다(물론 꼭 전문가들만 소리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방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일반봉사자들의 비중이 높다. 남들이 듣기에 거북하지만 많다면 누구든지 소리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음성정보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내

왼쪽부터 서수연, 황덕경, 김현선, 신진숙 씨.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연예인과 같은 존재다.



용은 소리샘봉사자들이 맡는 독서방을 비롯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재활정보, 소리우체통, 만세력, 계산기 등이 있다. 매달 편치는 있지만 이용건수가 많을 때는 월 4만 건이 넘기도 한다. 이 중 독서방에서 서비스되는 책은 한 달에 다섯 권. 지난 10월에는 《영화처럼》(고영희, 낭송자 이영희), 《해변의 카프카》(무라카미 하루키, 낭송자 서수연), 《춘추전국시대》(이수광, 낭송자 김필진), 《대륙풍》(서효원, 낭송자 신진숙), 《방각본 살인사건》(김탁환, 낭송자 김현선) 등의 책이 음성서비스로 제공됐다.

“책은 보통 한 달에 무협지 1권, 순수문학 1권, 베스트셀러 3권으로 구성돼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이유는 책선정이 철저히 애청자 취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황덕경 과장(35)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안인과 독서취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놈은 멋있었다》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사이의 독서취향을 비교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편성한 책이었다. 인터넷에서의 관심 못지않게 독서방에서도 단연 화제를 모아 그 달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했다. 구어체 문장이 오히려 낭독과 청취에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역시 대중적인 정서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다.

“물론 정안인들과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임신·육아와 성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죠. 특히 성에 관련된 정보는 주위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소리샘과 같은 곳이 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저희의 경우 주로 여성지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죠.”

장애인들이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특수한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협회에서는 ‘소리도서관www.sorisem.net’을 만들어 음성정보센터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15퍼센트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 봤는데 현재 30퍼센트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그 다음은 30퍼센트 정도는 센터와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소리정보를 이용하고 나머지 40퍼센트는 여전히 점자책을 통해 정보를 이용한다. 인터넷 정보 역시 그 기본 콘텐츠는 음성정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음성정보서비스의 역할이 앞으로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차별화된 서비스다. 현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교서적을 읽어주는 곳, 침술(직업)을 읽어주는 곳, 종합적인

책을 읽어주는 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육아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전문으로 알 수 있는 곳, 시사정보를 알 수 있는 곳 등으로 보다 전문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보접근을 막는 환경의 개선이다. 황덕경 과장은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는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힘들게 한다고 말한다.

“정안인의 경우 한 달에 1만2,000원의 구독료만 내면 신문을 꼼꼼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신문 한 부를 꼼꼼히 읽기 위해서는 전화요금을 9만 원이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은 장애인들이 정안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소리샘봉사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랑받는 것은 좋지만 자칫 무리한 전화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통신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한국통신의 ‘정보화 격차 해소’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고 한다. 눈의 기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에게 아름다운 의 상징은 소리다. 그들은 소리로 세상을 이해한다. 소리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음성정보서비스센터와 소리샘봉사단이야말로 어쩌면 이들 시각장애인이 다가가고픈 세계일지도 모른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